

전기료 '누진제 폭탄' 집중 난타 한전 "폐지는 반대...개편하겠다"

나주 혁신도시 한전 국감
"2006년 누진제 폐지하려다
정부 반대로 무산" 지적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원성을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적 관심사답게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당을 떠나 한전의 안정적인 요금제 운영을 꼬집었고, 한전 조환익(원쪽) 사장은 누진제의 개선 요구에는 동의했지만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5일 나주 빛가람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kWh에서 2013년 348kWh로 29% 증가했고, 지난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은 누진제 때문에 겨울에도 전기료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 영업이익률은 10.7%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1973년 제정된 누진제는 현재의 에



국감 선서 5일 오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한전 조환익(왼쪽) 사장과 임수경 한전KDN 사장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너지 소비 트렌드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한전은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누진제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2014년 2조5427억원에서 2015년 2조5301억원으로 126억원 감소했지만 전기요금은 2014년 4689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117억원 증가했다"며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고 전기

요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한 뒤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포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한전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현행 6단계 누진단계와 11.7배 누진율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한 발짝 물러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전 조환익 사장은 "지금과

같은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 때문에 꼭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침일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격차에 대해서도 조 사장은 "올해에는 유독 8월이 더워 김침일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났다"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보급"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치페이 어때요?"

김영란법 시행 1주일... '각자내기' 문화 확산

#지난 4일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목포 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개인카드를 꺼내 자신의 음식값 3만원을 결제했다. 공식행사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남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만원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1주일에 5만원씩 내고 점심식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식사회가 격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남을 꺼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더치페이'가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고위직에서 하위직까지 '안전한 식사와 자리'를 선호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관가 주변 한식당, 일식집 등은 울상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저녁식사를 마친 이 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은 김영란법을 의식해 모두 각자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지사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를 계산하려는 것을 말리고, 자신의 카드로 밥값 3만원을 직접 결제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 비서실 관계자는 "이례적인

사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는 각 행사별로 그 성격과 결제 방식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개인적인 모임을 제외하고 공적인 행사에서 개인카드 사용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향후 점심은 구내식당, 저녁은 공공에서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식 광주시 경제부시장, 정환성 전북 국제관계 대사, 전남도 의원 등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개인 카드를 현금으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했다.

이에 앞서 이들 호남 향우들과 광주 시 동구 한 식당에서 있었던 점심에서도 행사가 지원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별도의 자리에서 식사하고 각자 음식값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4일 더치페이(각자 내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자 내기 좋은 날' 오프닝 행사를 갖기도 했다.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 문화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서약서를 받는 등 김영란법의 여파는 곳곳에 미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위약금에 지방채... 'F1 부채' 전남도 재정 큰 부담

2029년까지 갚아야

전문학적인 빛을 남긴 F1의 위약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F1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위약에 따른 요구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수 천억원의 F1 지방채 부담을 지게 된 전남도가 위약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에 나설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에, 위약금까지 떠안을 경우 전남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5일 전남도 F1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OM은 지난 6월 그동안 요구했던 1년치 개최권료(4300만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F1 조직위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여전히 높아 거부했으며, 이후 FOM측의 추가 제시는 없었다.

F1 부채는 오는 2029년까지 매년 전남도의 재정을 압박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F1 경주장 건설(2009년)과 취득(2011년)으로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2848억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갚아야 하며, 이자만 538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까지 원금 1618억원과 이자 249억원 등 1867억원을 갚고, 13년 뒤인 2029년까지 원금 1230억원과 이자 289억원 등 1519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117억 원의 세입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리!

- 일시: 10월 16일(日) 9:30~
- 장소: 모교 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쌀 초과생산분 연내 전량 수매... 시장 격리 추진

당정, 쌀값 안정화 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폭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올해 안으로 일괄 수매,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쌀 초과(생산)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에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농식품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도 당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수요·공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과 관련,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천수답처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올해 내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외면 ▶6면
숲 속의 전남-단군전 풍치술 ▶18면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